

봉축사

불기2566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기 위한 점등식을 금강대학교 국제선원에서 모든 금강인들이 모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산 계룡산 자락에 세계적 인재양성을 위한 금강대학교 설립을 유지로 내리신 대한불교천태종 중창조이신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세계관과 위신력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인지하고, 그 유지를 받들어 학교를 세우고 지원해 오신 천태종단의 대덕스님들께도 머리 숙여 마음으로부터 경의를 표합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팬데믹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학기부터 법인처장 스님의 결단에 의해 대면 수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우리학교는 다른 대학들보다 최소 한 학기 먼저 학생들과의 만남이 가능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추세와 마찬가지로 금강대학교도 확진자 수가 감소세에 있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 매일매일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교직원 여러분과 학교 방침에 기꺼이 협조해주는 학생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각별히 조심해 가면서 학생들이 ‘기숙학교’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공부와 체력 단련과 공동체 정신 함양 등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대학교가 개교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 뜻깊은 해를 기념하기 위하여 지금 다양한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대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특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이되 현실을 감안 한 ‘한국형 리버럴아츠’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교육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특성화 방안이 마련되면, 그것을 주제로 개교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불교연구소와 공공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금강대학교가 2023학년도부터 시행하려는 특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의 방법, 그리고 학교생활 등에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 가을 개교기념일을 전후하여 학생들은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개교 기념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날 국내외 대학들이 많은 도전에 처해 있습니다. 흔히 근대주의에 대한 회의, 정보통신 혁명, 전지구화 등을 주요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여

기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기현상까지 보태지면서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도전과 위기를 잘 견디어 내면, 우리 학교는 어느 대학보다도 유리한 위치에서 발전을 이어 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유지에 따라 세계적인 인재양성의 명문 대학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 점등식에 참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와 같은 소망을 발원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우리 금강인 모두 각자 맡은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다짐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캐치프레이즈가 “상생과 화합”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강인 모두 부처님오신날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는 봉축 점등식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점등법어를 위해 참석해주신 국제선원 원장님이시기도 한 정장호 법인처장스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귀빈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불기 2566년 4월 27일

금강대학교 총장 정용덕 합장